

# 당진항의 명칭을 회복해야 하는 당위성

안기용 환경연구부, 연구위원

## I. 머리말

현재 아산만 일대의 항만시설은 위치가 경기도 평택시와 충청남도 아산시 및 당진군으로 되어 있으며, 항만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해상구역은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고온리(북위37°01'55"·동경126°44'58" 지점)와 충청남도 당진군 송산면 성구미리 동단(북위36°59'44"·동경126°42'12")을 연결한 선내의 해면(다만 남양호, 아산호, 삽교호 제외)으로 되어 있어, 2개도 3개군에 걸쳐 있다.

그러나 항만시설의 명칭이 평택항으로 되어 있어 아산 및 당진지역을 이용하는 선박들은 평택지역으로 잘못 알고 있는 실정이다.

당진군 및 아산시는 서해안 고속도로 완공으로 수도권에 근접한 교통요충지적 입지가 되고 또한 아산만권 유통단지 건설계획, 중국과의 최단거리 등의 요인으로 환황해권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으나, 아산만권역의 무역항이 대표성이 떨어지는 특정 지역의 지명으로만 불리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

무역항의 이름은 명칭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행정, 출입국관리, 검역소, 도선, 강취 등 선박의 입·출항에 따른 고용창출과 같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간접자본 확충과도 연계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본 고에서는 당진지역에 위치한 항만 시설이 당진항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당진항 분리 지정의 당위성

### 1. 당진항 역사성

당진(唐津)은 '당나라로 가는 나루'라는 의미)이라는 지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지역은 일찍부터 한반도와 당나라와의 해상교역이 활발하였던 곳으로 통일신라시대에 처음으로 당진(唐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중국의 원나라 이후 실시되는 해금정책(海禁政策)으로 바닷길이 막히면서, 고려후기부터 조선시대까지 당진(唐津)은 더 이상 대외교류의 창구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대신 해안방어의 중요기지로 부각되어 수군만호가 설치되기도 하였다.

현재의 당진군 송악면 '한진(漢津)'은 조선시대에 '대진(大津)'이라고 불리워졌는데 '漢津'은 '큰 나루'의 의미인 '大津'의 우리말 표기 '한 나루'가 한자로 표기된 지명으로 항구로서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대진은 조선시대 홍주목의 월경지인 신평현에 해당했던 곳으로, 주위에 당진현과 면천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고을에 편입되지 않고, 큰 고을[홍주목]의 월경지로 남아 있게 된 것은 그만큼 항구로서 중요한 지역이었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이 한반도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당진포구는 현재에도 당진포리(唐津浦里), 옥현리

삼포(三浦), 조금리 조금나루(造琴津), 삼봉리 웅포(熊浦), 강문리 부리포(富里浦), 운정리 공포(孔浦) 등 역사적 의미가 담긴 지명들이 상당 수 사용되고 있다.

## 2. 당진항 지정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항만이 지역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분야에서 다각적으로 나타나므로 정량적으로 계산하기는 어려우나 선박 입·출항에 따른 직접비용 외에도 해운관련기관의 입주에 따른 부대산업, 운송업, 창고업과 같이 항만 산업과 직접연관된 분야가 있으며, 관광, 교통, 문화 등과 같이 2차적으로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분야도 있다.

〈표 1〉과 같이 항만이 지역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이와 같은 정상적인 지표를 표현하기 위하여 선진항구 도시의 실질적인 예를 〈표 2〉에서 살펴보면 부산의 경우 총 고용인구의 약 28%가 항만관련산업에

종사하며, 기타쿠슈의 경우 30%가 항만관련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전체 고용자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40%에 근접하고 있다.

〈표 1〉 및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항만이 갖는 지역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는 매우 크며, 당진항도 무역항으로 지정될 경우 당진 및 아산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당진지역은 배후의 석문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고대·부곡 산업단지의 분양을 촉진시키고, 이는 다시 당진항 이용율 증대를 초래하여 상호상생작용으로 양자간 결합을 통한 시너지효과가 발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예상된다.

## 3. 항만의 명칭과 위치 관계

우리나라에는 지정항만 50개 중 28개항이 무역항으로

〈표 1〉 항만지정에 따른 파급분야 및 기대효과

구 분		종 류	기 대 효 과
직 접 파 급 분 야	해운항만 관련기관	지방해양수산청, 세관, 출입국 관리사무소, 검역소, 항만운송협회 등	· 인구증가 · 고용창출 · 투자촉진
	수상운송업	내·외항화물운송업, 여객운송업 등	· 2차부대산업 · 산업단지 활성화
	수상운수 보조업	예선업, 도선업, 선박청소업 등	→ 지역총생산 증가
	항만운송업	화물하역업, 검수업, 통관업, 검량·검정업 등	
	보관 창고업	냉장창고업, 위험물보관업, 농산물창고업 등	
2 차 파 급 분 야	기 타	선박수리업, 컨테이너수리업, 항만건설업, 식료품제조업 등	· 간접자본 확충 · 소득증대
	교통분야	육상·항공 연계교통망 가능, 지역민 생활 편의 등	→ 삶의 질 향상
	관광분야	연안관광 활성화	
	토지이용	효율성 증대	
	사회·문화분야	항구도시 이미지	

자료 : 당진항 지정 타당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위한 기본연구, 2001.3

〈표 2〉 향만의 지역경제 기여도

(단위 : %)

구 분	총인구(천명)	고 용	고용자소득	부가가치액	자치단체수입	연 도
부 산	3,654	27.7	20.7	34.2	-	1987
포틀랜드	61	22.0	-	-	-	1980
요코하마	2,915	26.0	23.0	32.0	29.0	1983
와카야마	403	19.0	28.0	46.0	39.0	1983
고 베	1,381	17.3	38.8	30.8	-	1984
기타큐슈	1,052	30.0	32.2	50.0	51.0	1978

자료 : 당진항 지정 타당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위한 기본연구, 2001.3

지정되어 있다. 이들 무역항들의 명칭을 정하는 특별한 규정은 없으며 통상 지명이나 지역민의 정서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개항된 28개의 무역항의 명칭을 보면, 23개항이 그 지역의 행정구역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5개항의 경우는 지역주민의 여론(삼천포항), 예전의 행정구역 명칭(삼천포항, 목호항), 동일 행정구역에 별도의 무역항이 존재(부산항-진해항, 광양항-여수항)하고 있는 이유로 현

재의 무역항 위치와 항명이 불일치하나 평택항과 같이 2개도 3개군에 위치하면서 대표성이 떨어지는 특정지역의 명칭을 항명으로 칭하는 예는 없다.

따라서 당진군이 당진지역의 항만시설을 당진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당진지역의 제 모습을 찾기 위한 당연한 주장이며, 지방화 시대에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자기 브랜드를 개발하여 지역의 이미지 창출과 지역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권리라고 볼 수 있다.

〈표 3〉 무역항의 명칭과 위치

항 명	지 정 항 (무역항) 위 치	비 고
부산항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진해시	대부분의 항만구역과 주된 배후기능이 부산지역에 위치하여 있으므로 부산항 명칭사용 (진해시 : 『부산·진해신항만』 명칭사용 건의)
인천항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명칭과 항명 일치
평택항	경기도 평택시, 충남 아산시 및 당진군	행정구역 명칭과 항명 불일치 행정구역 명칭과 항명 일치
마산항	경상남도 마산시	행정구역 명칭과 항명 일치
통영항	경상남도 통영시	1994년 까지는 행정구역상 경남 삼천포시로 되어 있던 것
삼천포항	경상남도 사천시	이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라 1995년 부터는 행정구역상 경남 사천시로 통합 편입되었으나, 지역주민의 정서와 여론을 받아들여 항만의 명칭을 삼천포항으로 사용
장승포항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시 장승포동
진해항	경상남도 진해시	행정구역 명칭과 항명 일치

항 명	지 정 항 (무역항) 위 치	비 고
옥포항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시 옥포동
고현항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동해항	강원도 동해시	행정구역 명칭과 항명 일치
묵호항	강원도 동해시	묵호항의 위치가 동해시 승격(80) 이전에 명주군 묵호항에 위치하여 묵호항으로 사용
속초항	강원도 속초시	행정구역 명칭과 항명 일치
삼척항	강원도 삼척시	행정구역 명칭과 항명 일치
옥계항	강원도 강릉시	강릉시 옥계면내에 위치하여 옥계항으로 사용
울산항	울산광역시	행정구역 명칭과 항명 일치
군산항	전라북도 군산시	행정구역 명칭과 항명 일치
장항항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군 장항읍
보령항	충청남도 보령시	행정구역 명칭과 항명 일치
대산항	충청남도 서산시	서산시 대산읍
태안항	충청남도 태안군	행정구역 명칭과 항명 일치
목포항	전라남도 목포시	행정구역 명칭과 항명 일치
완도항	전라남도 완도군	행정구역 명칭과 항명 일치
여수항	전라남도 여수시	행정구역 명칭과 항명 일치
광양항	전라남도 광양시, 여수시, 순천시	항세가 광양지역에 치우쳐 있고 별도로 여수항이 있어 지역정서에 문제가 없음
포항항	경상북도 포항시	행정구역 명칭과 항명 일치
제주항	제주도 제주시	행정구역 명칭과 항명 일치
서귀포항	제주도 서귀포시	행정구역 명칭과 항명 일치

주 1) 항명, 위치 : 항만법시행령 2조

주 2) 비교 : 관할지방해양수산청 질의·회신 자료

〈표 4〉 무역항 명칭의 분류

항 명	행정구역 명칭사용	주민여론 반 영	종전의 행정구역 명칭 사용	별도의 무역항 존재	비 고
부 산 항				○	진해항
평 택 항					2개도, 3개군이 위치해 있음
심천포항		○	○		
묵 호 항			○		
광 양 항				○	여수항
기타 23개항	○				

#### 4. 입·출항 선박의 항만행정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의 일반적인 입·출항 절차는 외해의 박지에서부터 입항신청을 하면 도선에 의해 접안·하역하고 출항하게 된다.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의 일반적인 입·출항 절차는 다음과 같다(그림 1).

현재 평택항을 이용하는 선박은 평택측 부두를 이용하는 경우와 당진측 부두를 이용하는 경우 입·출항 절차가 달라 입항선박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표 5〉에서 보듯이 해양수산부는 당진측부두 중 당진 화력부두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 평택측부두와 당진측 부두중 동부제강과 한보철강부두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관할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를 제외한 3개 관련기관은 평택측부두와 당진측부두를 구분하여 관할하고 있다. 또한 관련업체도 일정한 기준없이 편의에 따라 당진측과

평택측, 인천청과 대산청으로 구분하여 관할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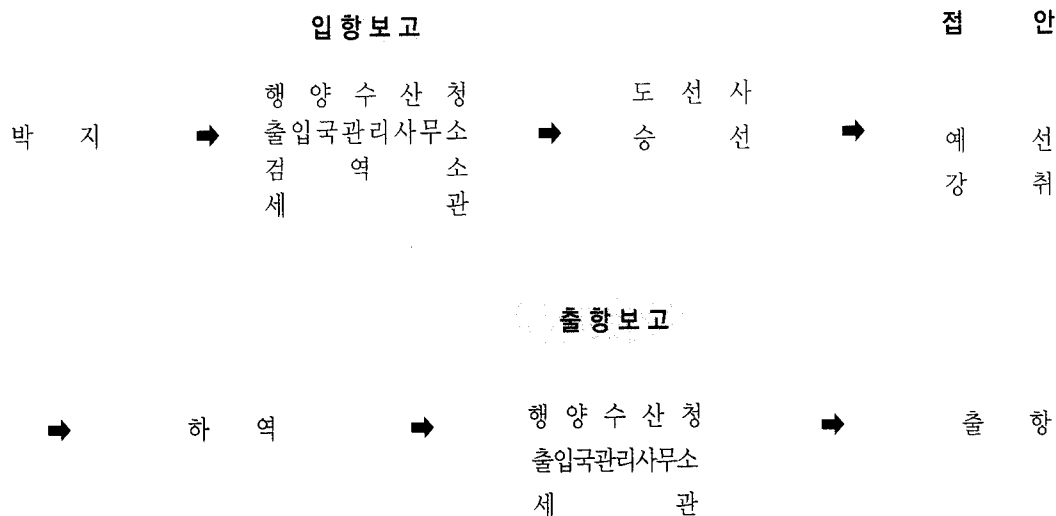
평택지역 부두를 이용하는 선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산하의 평택출장소와 관련업체 및 경기도에 위치한 관련기관을 이용하고 있어 Non-Stop 서비스가 가능하나, 당진측부두를 이용하는 선박은 관련기관 3곳이 충남측에 위치해 있으나 해양수산부는 인천 및 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 이원화되어있어 부두의 이용절차에 혼선이 있을 뿐 아니라 시간과 비용면에서도 불리한 입장이다.

따라서 항만이용 선박의 편의제공 차원에서 아산만지역을 평택항과 당진항으로 분리·운영하여 고객중심의 항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

#### 5. 당진항의 규모

당진항이 무역항으로 지정되기 위하여는 항명이나 이용

〈그림 1〉 선박의 일반적인 입·출항 절차



에 따른 불편 사항보다도 무역항으로서의 일정 규모와 사회간접자본으로서 국가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당진항이 분리 지정될 경우 군·장항과 비슷한 항계가 형성될 것을 가정하여 군·장항 및 평·

당항의 항만규모를 비교 검토하여 당진항이 무역항으로서의 규모를 갖추었는지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군산항의 항계내에 위치하면서 별도의 항계를 보유하고 있는 장항항과의 항만 규모를 비교한 <표 6, 7, 8>에

〈표 5〉 사용부두에 따른 차이점

구 분	평택측부두 이용 선박	당진측부두 이용 선박		비 고
		동부제강부두 한보철강부두	당진화력부두	
관련기관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평택출장소	대산지방해양 수산청	
	출입국관리 사무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오산출장소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대산출장소	
	검역소	인천검역소	군산검역소(대산지소)	
관련업체	세관	평택출장소	천안세관	
	도선사	인 천	대 산	
	강취	인 천	대 산	
	예선	평 택	대 산	
	수리	인 천	대 산	

〈표 6〉 항만 물동량 처리 실적

(단위 : 천톤)

구	분	1995	1997	1999	2000. 8
아산만지역 (평택항)	평택측	-	23,764	23,044	38,939
	당진측	-	1,848	3,088	4,367
	계	21,820	25,612	26,132	43,306
금강하구 지역	군산항	8,441	12,045	11,503	7,852
	장항항	592	782	623	407
	계	9,033	12,827	12,126	8,259

자료 : 해양수산부(당진측물동량은 당진군 내부 자료임)

〈표 7〉 항만물동량 추정치

(단위 : 천톤)

구	분	2001	2006	2011	2015
아산만지역 (평택항)	평택측	36,625	56,111	86,490	86,796
	당진측	4,114	6,303	9,716	9,751
	계	40,739	62,414	96,206	96,547
금강하구 지역	군산항	15,654	27,531	35,152	40,833
	장항항	811	1,427	1,822	2,117
	계	16,465	28,958	36,974	42,950

자료 : 해양수산부, 항만기본계획 제정비 1999. 12

주) : 당진측물동량은 한보철강부두+동부제강부두+당진화력부두 인.

주) : 평택측 물동량은 아산만지역(평택항)물동량은 - 당진측물동량인.

〈표 8〉 항만시설 현황

(1999년 현재)

구	분	2001	2006	2011	2015
아산만지역 (평택항)	평택측	36,625	56,111	86,490	86,796
	당진측	4,114	6,303	9,716	9,751
	계	40,739	62,414	96,206	96,547
금강하구 지역	군산항	15,654	27,531	35,152	40,833
	장항항	811	1,427	1,822	2,117
	계	16,465	28,958	36,974	42,950

자료 : 해양수산부, 인터넷 자료

서 보듯이 장항항 보다 당진항이 물동량 추정치에서는 2015년 약 4배, 항만 시설면에서는 3배 정도의 우위를 점하고 있으므로 항만규모만을 가지고 판단하여도 당진항은 무역항으로 손색이 없다.

### Ⅲ. 분리 지정되었을 경우 문제점

당진항이 평택항으로부터 분리되어 별도의 무역항으로

개항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세계항만 업계의 전반적인 추세인 대형화 및 물류단지화를 지연 또는 분할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아산만 내 전체 항만시설과 아산유통단지, 석문공단 및 포승공단 등과 연계한 관세자유지역 추진에 불리한 여건을 조성할 것이다.

둘째 항만을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행정절차가 편리해

질 것이나, 항만운영에 있어서는 불합리한 요소가 발생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인접한 두 개의 무역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출장소, 관제시스템 등을 분리운영 하여야 하므로 운영자측면에서는 예산의 낭비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선박의 입·출항시 동일항로, 동일박지 사용이 예상되므로 해난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상분쟁의 우려가 있다.

넷째 유사한 사례에 직면하고 있는 부산항, 광양항 등에서도 이와 같은 분쟁을 야기시킬 수 있다. 부산항은 부산-진해, 광양항은 광양-여수에 위치하여 당진항의 경우와 같이 항명을 둘러싼 분쟁의 불씨를 제공 할 수도 있다.

다섯째 항만시설의 유지·관리에 있어서의 이원화로 당진항과 평택항의 차별화가 심화 될 수도 있다. 항만시설은 여타의 사회간접자본과 달리 주기적인 준설 등 유지·관리가 필요한 시설이나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무역항이 투자 우선 순위에서 떨어질 경우 자칫 시설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 IV. 결론

세계경제의 급속한 통합으로 국경없는 글로벌화된 사회로 발전하는 현 상황에서 세계속의 우리나라, 우리나라 속의 지자체 및 개인에 이르기까지 독자적인 영역과 창조성이 존중되어야 국가경쟁력의 확보는 물론 지방중심의 경제·사회질서가 정착되리라 본다.

지역발전을 위한 물적하부구조 즉 항만, 도로, 상하수도의 수요는 증가되고 있으며 이중 해양관련 산업은 1·2·3차 산업을 포괄하는 종합산업으로 지역의 상징적, 경제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당진군이 현재 평택항 중 당진지역에 위치한 항만시설에 대해 당진항으로 지정하고자 해양수산부에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자신의 권리를 찾고, 당진항 건설에 따른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고려할 때 21세기 다원화된 경제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에서도 항만운영의 효율성보다는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박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항만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름길임을 인식하고, 공공서비스의 지향점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어 항만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켜야한다.

따라서 삼국-통일신라시대 당나라와의 교역으로부터 시작된 당진(唐津), 조선시대 충남서·북부 지역과 중앙을 연결하던 커다란 항구 대진(大津)등이 현대에 와서는 평택항으로 불리워 진다면 역사적 의미를 찾아보기 어렵고, 당진지역이 계속해서 평택항으로 일컬어 질 경우 당진지역의 주권을 외면하는 것이므로 현 아산만지역의 항만시설을 평택항과 당진항으로 분리·운영하는 것이 지역 정서와 국토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